

## ‘49년 만에 최악’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 ‘비상’

국지적인 용수 부족 사태 예상  
 전남 신안·충북 보령 물 확보 중  
 경북 청도 운문댐도 위험 수위

보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부터 가뭄 위기경보 ‘경계’ 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 가뭄 및 하천유지용수 감량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청도 운문

댐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저수율이 42.3%(평년대비 100.4%)로, 앞으로도 강수가 적을 경우 가뭄 단계가 ‘관심’ 단계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12월부터 평년보다 매우 적은 수준의 강수로 기

상가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강수 부족이 분야별 용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해 사전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영농철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9일 “앞으로의 강수 상황에 따라 국지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어 영농철에 대비해 용수 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 강수량은 평년대비 14.7%인 13.3mm 수준으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전남, 경남 및 강원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는 “향후 3~4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5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일부 중부지역으로 기상가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현재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 대비 108.5%, 다목적댐은 114.5%, 용수댐은 101.5%로 평균 저수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강수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마늘, 양파 등 노지 월동작물에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양수장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용수를 공급 중이다.

또 저수율이 평년 대비 70% 이하로 가뭄 위기경보 ‘관심’ 단계인 전남 신안군은 저수지의 양수지류, 배수로에 물가두기 등으로 용수 확



투표소에 찾아온 봄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제주도 연동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1투표소 앞 화단에 튜립이 활짝 피 봄기운이 물씬 풍긴다.

전남경찰, 차량탐재형 교통 단속 장비로 과속 교통사고 ↓

전남경찰이 차량탐재형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 이후 과속에 의한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차량탐재형 교통단속장비(안행단속) 2대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1.4%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차량탐재형 교통단속장비가 운영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2월까지 과속 단속건수는 3706건 이었다. 이 중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같은기간 14건에서 4건으로 71.4%, 사망사고 2명에서 1명, 부상 28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

차량탐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차량탐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구례군, 전기자동차 57대 보급한다...10억 원 투입  
 승용차 31대·화물차 26대 보급

구례군은 10억 원을 들여 전기승용차 31대, 전기화물차 26대 등 총 57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9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구례군에 소재한 법인, 기관은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 31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3대, 택시 3대, 법인·기관에 9대를 지원한다. 나머지 16대는 일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530만 원에서 최대 14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 26대는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등에 2대, 법인·기관에 5대, 중소기업 생산제품 2대를 지원하고, 17대는 일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화물차 구매 보조금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921만 원에서 최대 2533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군은 7일부터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광주·전남 일일 확진 1만5000명 대 돌파...역대 최다

광주 7418명 감염...하루새 70~90대 11명 치료 도중 숨져  
 전남 22개 전 시·군 7957명 확진...사상 첫 7000명 대 돌파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만5000명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광주 7418명, 전남 7957명 등

총 1만5375명이다.  
 지난 4일 최대 일일 확진자(1만3374명) 기록을 뛰어 넘었다. 이날 1일부터 전날까지 8일 연속 매일 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5명을 제외한 7413명은 모두 지역 안팎 일상생활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된다.  
 동구 소재 요양병원 7명, 서구 모 요양병원 4

명, 북구 한 중형병원 8명,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 7명 등 요양·의료기관 4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다. 연령대 별로는 20세 미만 2702명(36.4%), 20대 1107명(14.9%) 순이었다.

특히 전날 하루 광주에서만 11명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치료 도중 숨졌다. 연령대 별로는 70대 3명, 80대 3명, 90대 5명 등 모두 고령자다. 이로써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 이후 사망자는 152명으로 늘었다.

현재 광주 지역 위중증 확진자는 36명,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 환자는 68명으로 집계

됐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재택 치료 중이다.

전남도 당초 일일 최대 확진자 기록(3월 3일 6412명)을 경신, 사상 첫 7000명 대를 돌파했다.

초등학교·병원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 7957명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 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진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